스위스 여름 스토리.

도시와 알프스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

커피 문화 그윽한 바젤
꽉 들어찬 루체른 명소 버킷리스트
알프스 가든의 여름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 풍경이 각각 다른 스위스의 여러 목적지를 같은 방법으로 여행할 수는 없는 법이다. 도시와 산에서의 여행 법도 사뭇 다르다. 계절마다의 여행 법도 다른 법이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만이 아는 도시와 마을의 개성과 특징을 여행자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즐기는 법을 꾸준히 소개해 오고 있다. 올여름, 스위스를 찾으면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 방법을 소개한다.

1. 그저 즐길 도시, 바젤(Basel)

커피 수입상 바니아 엔제이마나(Vanía Nzeyimana)와 함께 떠나는 바젤 여행

유서 깊고 생기 넘치는 커피 문화가 있는 바젤은 커피 애호가들을 감동시키는 곳이다. 유럽의 주요 수로인 라인(Rhine) 강이 커피와 다른 물품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피 무역에 있어 바젤은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커피의 품질과 맛이 수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바젤은 예술, 문화, 건축, 미식이 특별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 도시는 다양한 박물관을 품고 있는데, 시립미술관인 쿤스트무제움 바젤(Kunstmuseum Basel)도 그중 하나다. 르네상스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술에 있어 세계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로 꼽힌다. 바젤의 유서 깊은 구시가지도 또 다른 볼거리다. 바젤 대성당은 15 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매력적인 골목과 광장 사이에 우뚝 솟아나 있다.

바니아 엔제이마나
여기, 바니아 엔제이마나가 있다. 르완다에서 태어나, 바젤 근교에서 성장했다. 르완다 커피를 좋아했던 그녀지만, 커피 관련 비즈니스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꿈같기만 한 일이었다. 르완다에 있는 커피 업체인 키부벨트 커피(Kivubelt Coffee)를 방문했을 때, 그제야 공정 및 지속가능한 무역에 대한 열망이 분명해졌다. 1 인 기업을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소마호 스페셜티 커피(SOMAHO Speciality Coffee)를 설립했다.

바젤, 사이클링의 도시
바이나는 그린 마인드를 가진 비즈니스 우먼이다. 바젤에서는 가능할 때마다 약속 장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젤의 화려한 면모를 속속들이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업무상 미팅이 그녀를 바젤의 화려한 명소 곳곳으로 데려다준다. 메쎄 바젤(Messe Basel) 전시장에 있는 “천국을 향한 창문(Window to heaven)”, 노바티스 파빌리옹(Novartis Pavilion), 아름다운 라인 강변을 자연스럽게 지나게 된다. 일과 휴식이 조합되는 특별한 방식이다!

모든 여정의 16%
바젤 시민들이 이동하는 전체 여정의 16%가 자전거로 이뤄진다. 스위스 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전거 이용률을 바젤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게스트 바이크 바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바젤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자라면 체크인할 때 발급받는 바젤카드(BaselCard)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하루에 CHF 20 으로 바젤 바이크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바젤 SBB 기차역에 있는 렌트 어 바이크(Rent a Bike)를 찾으면 된다.

커피는 장인 정신
바젤에 있는 로스터리 kaffeemacher.ch 에서 바니아는 그린 커피 빈을 수입해 고급 커피로 변신시킨다. 그 과정은 로스팅 후에도 이어진다. "커핑(Cupping)"이라 불리는 일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커피의 맛과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이다. 산미, 바디, 아로마가 분석되고, 커피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게 된다. 로컬 지역에서 로스팅 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수요는 바젤의 미식 업계뿐만 아니라, 가정 머신 용으로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다.

"사람들은 구입하는 제품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어 하죠" 바니아가 말한다.

바젤이야말로 커피의 도시
바젤에는 커피 문화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카페가 많다. 카페 프륄링(Café Frühling), 아방 구즈(Avant-Gouz), 카페-모빌(Kaffee-Mobile)이 대표적인 카페다. 커피 문화는 바젤의 라이프스타일에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런 카페들은 평화와 고요의 안식처에요." 바니아가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꿈을 사업으로 성공시켰다. 바젤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뿌듯하게 여기는 그녀는 다채로운 바젤의 일부가 된 것이 마냥 기쁘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스트리트 아티스트인 파트리치아 슈탈더(Patrizia Stalder)가 바니아의 초상을 20m x 5m 크기의 벽화로 그리기도 했는데, 바젤의 에를렌마트(Erlenmatt) 구역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자전거로 찾아가면 더욱 좋다.

2. 루체른(Luzern) 버킷 리스트
루체른 여행을 위한 10 가지 팁

스위스 중앙에 자리한 루체른은 여러 볼거리로 여행자를 기다린다. 관광명소나 맛집, 페달로, 주변 자연 풍경 등 그 무엇을 원하든 유용하게 사용할 열 가지 핵심 아이템을 추렸다. 무엇보다 루체른의 명소는 어디든 걸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루체른은 웅장한 산이 만들어 내는 파노라마와 루체른 호수 사이에 자리해 있다. 다양한 도시 여행을 위한 완벽한 목적지로, 구시가지 산책, 유람선 탑승, 주변 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루체른을 돌아볼 최고의 방법은 걷기다.

그런 명소와 액티비티 열 가지를 소개한다.

1. 카펠교와 수탑(Kapellbrücke)

친근한 풍경이다. 1993 년 카펠교는 화재의 참상을 겪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달린 목조 다리와 다리에 접해 있는 수탑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주인공이다. 다리를 걸으면 로이스(Reuss)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천정의 그림이 스위스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

2. 무제크(Musegg) 성곽
무제크 성곽은 과거 루체른 도시 요새의 일부다. 아홉 개의 타워가 루체른 도심 위로 솟아 있는데, 아름다운 전망을 선사한다. 성곽 뒤로는 힌터 무제크(Hinter Musegg)가 있다. 도심과의 근접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농가의 생활에 젖어볼 수 있다. 배고픈 염소와 귀여운 아기돼지를 찾아보고 맛있는 유기농 제품도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다.

3. 사자상과 빙하 정원
부상당한 사자는 인상적인 기념비로, 1792 년 파리에 있는 튈르리 타워에서 싸우다 죽어간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해 조각된 것이다. 바로 옆에는 빙하 정원이 있는데, 20,000 여 년 전 빙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산속 내부의 어두운 공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바위 환경 속에서 루체른의 사암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시 바다에서의 형성부터 산으로의 변화, 마지막 빙하기 동안의 이야기까지. 조금 돌아 거울의 방에 들어가 보면 좋다. 다시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스위스 트래블 패스에 포함되어 있는 스위스 박물관 패스는 루체른의 박물관을 입장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4. 루체른 호수
루체른은 루체른 호숫가에 자리한 위치 덕분에 더운 여름날 특히 빛을 발한다. 도시를 오랫동안 거닌 후,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혀가도 좋다. “인젤리(Inseli)”는 풀밭에 편안히 누워 음료 한 잔을 즐기기 완벽한 장소다. 물가보다 물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유람선을 타고 짧은 호수 투어를 즐겨 봐도 좋다. 힘을 좀 쓰고 싶은 기분이라면, 페달로(pedalo)에 올라타 페달을 밟으며 루체른 호수를 떠다닐 수도 있다.

5. 나이트라이프
여러 바가 루체른에서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제바트(Seebad)에서는 수영을 하며 땀을 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음료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선셋 뷰로도 유명하다. 콘서트를 즐긴다면 카카엘(KKL)을 즐겨 찾을 것이다. 매년 500 회의 국내 국제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화려한 스릴을 찾아 도시를 찾았다면 그랜드 카지노 루체른을 찾아봐도 좋다.

6. 필라투스(Pilatus)
루체른의 전설적인 산 위에서 루체른 호수, 도시, 360 도 알프스 파노라마가 빚어내는 웅장한 뷰를 감상할 수 있다. 루체른에서 짧은 기차 구간을 편하게 이동해 하이킹이나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로 “용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서는 쾌적한 하이킹이나 용의 테마가 곁들여진 보물 찾기를 즐길 수 있다.

7. 쇼핑
쇼핑 없이 무슨 도시 여행이란 말인가? 루체른에서는 어여쁜 골목과 거리를 거닐며 윈도우 쇼핑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부티크, 쉬크한 상점, 명품 브랜드가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8. 어디에서 먹을까

루체른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맛을 통해서다. 전통 퐁뒤부터 이국적인 요리나 루체른 향토 요리인 쉬겔리파스테테(Chügelipastete)까지. 로이스 강을 따라 어여쁜 레스토랑이 여럿 있는데, 카펠교와 구시가지 최고의 풍경도 담아낸다. 화창한 여름날에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다.

9. 식혀갈 무언가는 어떨지?
여름이면 매일이 아이스크림 데이다. 콘피세리 바흐만(Confiserie Bachmann)에서는 신선하게 매일 만든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여러 맛과 색을 고를 수 있다. 특히 루체른 호숫가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지는 곳이다. 최고의 식수로 빈 물통을 채울 분수대도 도시 곳곳에 많이 있다.

10. 숙소
사치를 한 번 부려볼 때다! 호텔 슈바이처호프 루체른(Hotel Schweizerhof Luzern)은 왕같이 자고 귀족같이 깨어날 수 있게 해준다. 객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화려한 루체른 호수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래도 부족하다면 레스토랑에서 미식 메뉴를 즐기고, 바에서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고, 스파에서 쉬어가도 좋다.

꿀팁: 50 스위스 프랑을 드립니다
루체른 도시의 매력을 발견해 보자. 루체른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CHF 50 상당의 씨티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 루체른 관광청을 통해 CHF 100 이상의 호텔 숙박을 예약하면 받을 수 있는 카드로, 루체른 기차역 플랫폼 3 번에 있는 루체른 투어리스트 오피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 확약서를 보여주면 된다. 루체른의 다양한 숍,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약: www.luzern.com/en/highlights/citycard-promo

3. 파노라마가 있는 플라워 파워
쉬니게 플라테(Schynige Platte)의 알프스 가든(Alpine Garden)에서 눈 호강

쉬니게 플라테는 알프스의 3 대 명봉,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뿐만 아니라, 툰(Thun) 호수와 브리엔츠(Brienz) 호수의 파노라마를 담뿍 선사한다. 이곳의 비밀 스타가 있는데, 바로, 알프스 식물 정원이다. 720 주 이상의 스위스 알프스 식물이 여행자를 반겨준다. 파울 브루너(Paul Brunner)와 그의 팀이 알프스 가든에서 세심한 손길로 식물을 돌본다. 호기심 가득한 방문자들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빛나는 쉬니게 플라테
쉬니게 플라테는 해발고도 2,076m 높이로, 인터라켄(Interlaken)에서 멀지 않은 산자락에 있다. 당일 여행자들과 하이커들에게 인기 있는 봉우리로, 같은 이름의 산장 호텔과 레스토랑도 있다. “빛나는 판”이라는 뜻을 가진 쉬니게 플라테는 산자락에 있는 거대한 암벽에서 기인한 이름인데, 이 암벽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여유롭게 오르는 기차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게 해주죠.”라고 파울 브루너가 말한다.

알프스 가든
알프스 가든은 1927 년에 설립됐다. 이제 거의 100 년째 여행자들을 맞이해 온 셈이다. 8,000m2 이나 되는 너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 파울 브루너의 하루가 시작된다. 식물은 그의 순수한 열정이다. 1995 년부터 연중 알프스 가든에서 일을 해왔다. 식물과 흙을 돌보고 가꾸며, 들판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투어 그룹 가이드까지 한다. 그의 팀에는 세 명의 정원사와 그의 부인 에스터 브루너(Esther Brunner)도 포함되어 있다.

“쌓인 눈을 삽질하는 5 월에 시즌이 시작돼서 씨앗을 모으고 풀 베기를 하는 10 월에 시즌이 끝나죠.” 파울이 설명한다.

식물의 왕국
누가 이런 걸 발명했을까? 아마도 영국인들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원에서 알프스 들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여행했던 영국인들은 씨앗과 작은 식물을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다시 스위스 사람들로 하여금, 스위스에도 알프스 정원을 만들게 했다. 쉬니게 플라테의 알프스 가든은 1927 년에 만들어졌는데, 자연환경 속에서 최대한 많은 스위스 알프스 식물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

2,000m 위에서 살고 서식하고
알프스 가든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식물이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이다. 알프스 가든에는 16 개의 서식지가 있다. 석회질이 없는 토양을 좋아하는 알프스 식물을 위한 원시 암석 들판, 남국 식물을 위한 리비에라, 노출된 위치를 좋아하는 식물을 위한 바람 드는 코너가 좋은 예다. 눈이 쉽사리 녹지 않는 계곡과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는 알프스 습지도 특별한 서식지다.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닌 식물들
“알프스 가든은 가정용 구급상자 같죠.”라고 파울이 말한다.

여러 종류의 알프스 식물은 치유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식물은 전통적으로는 물론, 현대 약학에도 이용되고 있다. 적정한 양이 핵심이다. 투구꽃 무리는 독성이 있지만, 컨트롤된 소량을 사용하면 약효가 있다. 대부분의 약초는 아로마가 있는 허브로, 차나 증류 추출 형태로 약효를 이끌어 낸다. 잘 알려진 익숙한 약초로 망종화가 있는데, 항우울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노란 겐티안은 소화 효과로, 아르니카는 타박상에 효과로 알려져 있다. 파울이 제일 좋아하는 약초는 아르니카다.

“아르니카는 알프스 태양처럼 생겼어요. 파워를 한가득 머금고 있죠.” 파울이 아르니카를 좋아하는 이유다.

약초 식물
아르니카 꽃은 특별한 생김새다. 지금까지 150 가지의 약학적 유효성분이 증명되었다. 아르니카는 통증 완화, 심장 질환,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통 및 타박상에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시작은 어렵다
정원사 라리싸 호퍼(Larissa Hofer)가 모종에 물을 준다. 거친 산악 환경에서 어린 식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알프스 가든에 있는 원예원에서 세심하게 모종을 돌본다. 스위스 전역에서 정원사들이 채집했거나 다른 알프스 정원사와 교환한 씨앗에서 새싹을 틔운 것이다. 식물에 따라 알프스 가든에 옮겨 심을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 년이 걸린다.

방문의 마무리는 짧은 하이킹으로

알프스 가든을 잘 감상한 뒤, 짧은 하이킹을 원한다면 파노라마 트레일을 걸어보면 좋다. 순환 하이킹로로, 약 2 시간 정도가 걸리는 코스다. 먼저 쉬니게 플라테 산장 호텔(Berghotel Schynige Platte)로 향해 허기를 채우거나 쉬어갈 수 있다. 짧은 오르막 뒤에는 다우베(Daube) 전망대가 화려한 풍경을 선사해 준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능선 길을 따라 오버베르크호른(Oberberghorn)을 돌아 걸을 수 있다. 마못 무리와 수천 송이의 알프스 들꽃을 지나 로우허호른(Loucherhorn)까지 이어진 뒤, 쉬니게 플라테 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정표가 꼼꼼히 설치되어 있어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다.

자료 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ko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